

서노송예술촌에 활력 불어넣는다

전주시, 선미촌 물왕벌길 일대서 '선미촌리빙랩 프리마켓' 운영 버스킹·체험행사 등 진행... 선미촌 활성화 위해 지속 행사 추진키로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난 전주시 서노송예술촌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미촌 물왕벌길 일대에서 '선미촌리빙랩 프리마켓'을 개최했다.

선미촌 리빙랩 사업은 과거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팝업스토어와 문화 창작(체험)·전시 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선미촌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이날 프리마켓에는 선미촌 리빙랩 참여팀 7개 팀과 참여를 희망한 지역단체 17개 팀 등 총 24팀이 참여한 가운데 먹거리, 수공예품, 제로웨이스트물품, 인테리어 소품, 반려동물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또,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졌다.

특히 이날 물왕벌길 일대에서는 선미촌리빙랩 사업 참여 팀 외에도 지역주민으로 꾸러진 단체(팀)들이 각자 준비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지역 청년음악인들이 버스킹 공연에 가세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미촌 물왕벌길 일대에서 '선미촌리빙랩 프리마켓'을 개최했다.

또한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함께 선착순 100명에 한해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1인 1매)하는 이벤트도 펼쳐져 흥미를 더했다.

시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폭염기와 휴가철을 제외하고 매월 선미촌 리빙랩 프리마켓을 추진하여 방문객들에게 선미촌리빙랩 공간을 더

욱 알리고, 선미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과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차량 우회와 통행 안내 등을 실시했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

은 "버스킹공연 및 체험행사, 물품 판매 등 프리마켓 행사추진으로 선미촌리빙랩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선미촌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야호 아동정책참여단, 전통문화 체험

전주시, 전주향교 탐방·유복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는 29일 전주향교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과 함께 전주 역사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참여단 아동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전주의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아동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경기전과 오목대를 돌아보며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전주향교 탐방 △유복체험 △합죽선 사군자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도 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해 평소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은 아이

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며 놀이문화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전통놀이시간도 진행했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정책관은 "이번 정책참여단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동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13세 아동 10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야호 아동정책참여단은 놀이터와 같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홀로함께 삶' 추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전주시가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은 전주지역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홀로함께 삶'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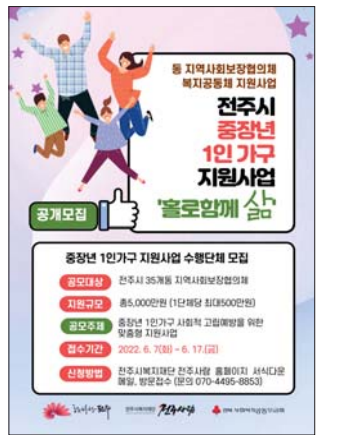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 '홀로함께 삶'은 전주지역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복지공동체프로그램을 공모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배분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주민참여도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최대 5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기존에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발기로 확정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6월 17일까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누리집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팀(070-4495-8853)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금안동 반쪽반쪽 빛나는 삶(이동목욕) △송천 1동 복지지원 이음새(연결관) 구축사업(뉴스레터) △중양동 어르신 반려식물 돌봄사업 △팔복동 사랑가득 말반찬 △호성동 행복을 나르는 희망열차(반찬, 이불, 이·미용, 웃음치료) 등 5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안전, 건강, 여가, 자립영역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구를 살리는 정원, 정원이 혁신하는 지역'

전주시, 6월 2-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등서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다음 달 2일 개막한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6일까지 님새 동안 전주월드컵광장과 서신동 서신길공원, 서일공원 일대에서 '지구를 살리는 정원, 정원이 혁신하는 지역'을 주제로 한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조성한 특별한 정원은 물론, 정원 산업의 도약을 이끌 다양한 공간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전주 곳곳에서는 △정원이 도시의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정원산업전 △전문작가와 시민이 조성한 정원 △숲속

의 정원 △텃밭정원 △가정에서 조성 가능한 형태의 홈 가드닝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박람회의 핵심 장소인 전주월드컵광장에서는 △정원 소재 관련 80여 개 전문업체의 '정원산업 전시' △청량한 에메랄드그린으로 조성된 '숲속의 정원' △전주를 상징하는 자생식물로 조성된 '전주꽃밭' △다양한 채소로 조성된 '텃밭정원' △아파트 베란다 등 실내의 공간에 활용 가능한 홈가드닝 △초록정원사가 조성하는 한 평 크기의 정원인 '한 뼉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정원 전문가들이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원토크쇼'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텃밭

채소 및 허브를 활용한 요리를 시연하는 '요리사의 정원' △감성을 자극하는 감동이 있는 정원 관련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 속 정원' 등의 문화 프로그램도 선을 보인다.

이외에도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시민을 위해 가드닝 교육을 하고 시연하는 '정원조성 시연' △다양한 재활용 용기에 식물을 심는 '초록한잔심기' △탄소중립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후 공기정화 식물을 심는 '탄소중립 교육·체험' 등 시민이 직접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풀, 꽃, 나무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정원을 보여 자연이 주는 기쁨과 여유를 느낄 수 있

는 '정원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서신동 마을정원에서는 전문가가 정원 4개소, 시민작가 정원 3개소, 마을 정원 1개소 등 전문가들과 시민작가들이 다양한 조성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5일 이곳에서는 △꽃향기 만들기 △꽃향기 디퓨저 만들기 △꽃향기 마크라메 △꽃도장 찍기 △꽃향수 만들기 등의 5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 관계자는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는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찾아 도심 속에서 초여름의 소풍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 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길 원하는 시민은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누리집(www.jjcf.kr) 또는 전주월드컵광장 행사장에서 사전예약(미달 시 현장접수)을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단속반 꾸려 6월 말까지 청소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청소지원과 전직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지원과 직원 5개 반 30여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대표 취약지역 100여 개소에서 현장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 및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CCTV영상자료 및 고지서, 우편물 등 증거물 확보를 통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분리배출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우편엽서 등 서면이나 FAX·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폐기물법률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최방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온라인 접수로 개선

전주시설공단,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 6월 1일부터 변경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예약 접수 방식을 온라인 접수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전화 선착순 예약 접수 방식이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용객들이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개설했다.

온라인 예약은 추첨 방식으로, 매달 1~3일 다음 달 사용분에 대한 예약을 접수해 추첨을 진행하고 4~6일 당첨

된 예약에 대한 결제가 진행된다. 이후 7일부터 잔여분에 대한 선착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예약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1인 최대 5코트까지만 당첨이 가능해 특정한 코트 다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잔여분 예약은 코트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온라인 예약으로 변경된다. 이점주 공원운영부장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용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 모두의 공공체육시설로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주말 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6월 4일~연말까지 초등학생 자녀 둔 가족 대상 '박물관유물탐험대'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6월 4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주말 교육프로그램인 '박물관유물탐험대'를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박물관유물탐험대'는 매달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한 점을 선정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박물관유물탐험대의 첫 번째 주제는 '호작도'로, 오는 6월 4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흔히 까치와 호랑이 그림으로 불리는 호작도 이야기와 우리 역사·문화 속 호랑이 이야기에 대해 듣고, 호작도를 활용한 열쇠고리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6월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www.jonjumuseum.org)을 통하여 진행되며, 이번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8-6485)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린이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초등학



생 자녀를 둔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호랑이 옛날 이야기 특별전인 '호랑이가 어휴'이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7월 3일까지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